

남치형의 『바둑의 사회와 문화』를 읽고

이 창 봉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남치형의 <바둑의 사회와 문화>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둑 관련 광범위한 사회와 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한 융합 학문으로서의 바둑학 분야의 학술 서적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서평을 쓸 수 있는 최적 임자는 바둑학을 전공하고 연구한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바둑학자가 아니라 언어학자다. 바둑 관련 측면에서는 그저 아마추어로서 바둑을 오래 두고 사랑해 온 팬일 뿐이다. 이 서평은 바둑 팬의 한 사람으로서의 시각과 언어학자로서의 학자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결합된 성격을 담고 있다.

어느 학자가 “학문이란 우리 주변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설명하는 노력(Science is a conscious effort of explaining something that is happening unconsciously around us)”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인용구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의 중심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책의 학문적 성격을 절감하게 된다.

바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접하면 우리는 흔히 두 사람이 반상 위에서 흑과 백의 돌을 번갈아 놓으며 두는 한판의 바둑을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남치형 교수 같은 바둑학 학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판의 바둑으로만 인식하는 바둑을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과 그 사회와 문화까지 훨씬 더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와 달리 저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바둑 관련 지식과 정보가 훨씬 풍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둑의 외연을 확장해서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상상력과 통찰력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바둑 사회학’에서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는 시각과 분석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상상력 없이 바둑을 잘 둘 수 있을까? 바둑판 위의 현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어디에 어떻게 수를 더하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지는 주로 형세 판단과 수읽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사회학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다른가? (중략) 형세를 판단하고 올바른 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단지 집을 세고 계산하고 수를 읽는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집이 될 것인지, 상대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집을 키우려고 할지, 그에 대해 나는 어떤 대응을 할지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최소한 나에게서는 명약관화해야 한다. 사회학적 질문과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9쪽).

저자의 관찰은 바로 우리가 흔히 한판의 바둑을 둘 때 수많은 변화와 변수를 접하며 끝없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며 매 순간 최선의 수를 둔다는 의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판의 바둑을 둘 때의 상상력이 바둑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회학적 상상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바둑 사회’로 불리고 ‘바둑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의 광범위한 현상을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깊이 들여다보고 흥미로운 분석과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2장의 주제는 ‘스포츠 사회학’이다. 이곳에서 저자는 바둑을 스포츠로 볼 수

있는지 정체성 관련 논쟁을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비판하면서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필자에게는 논쟁의 흐름과 내용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이 논쟁의 배경에 바둑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스포츠화 움직임이 깔려 있었고 결국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정가맹 단체가 되었고 아시안 게임에서 발군의 성적을 거두고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 되는 바둑의 획기적인 외연 확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발견이었다. 또한 이 논쟁이 ‘바둑이 스포츠인가?’라는 원래 물음에 머물지 않고 ‘스포츠란 무엇인가?’를 묻게 함으로써 스포츠학 특히 스포츠 사회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도 매우 신선한 깨우침이었다. 이곳의 논의를 통해 바둑 현상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물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비판적 비교와 융합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무한 잠재력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히 필자의 전공 분야인 언어학 분야 등 인문학 분야와의 통섭과 융합의 길이 널리 열려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제3장 ‘바둑과 근대화’에서 저자는 한국 바둑 현대사를 ‘근대화’의 정의를 시작으로 역사학적 시각에서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 바둑이 일본 바둑계를 모범으로 삼아서 모방으로 출발하여 발전을 도모하였고 마치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 모델처럼 압축적 근대화를 이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저자의 서술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바둑 관련 서술에 앞서서 근대화 관련 기본적인 역사학적 배경을 충분히 해설한 후 그 맥락을 이어서 바둑 관련 역사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친근하게 서술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기에 이해도 깊어지고 바둑을 한국 역사 특히 경제 성장 역사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단기간의 고도 경제 성장 뒤에는 늘 문제와 희생이 따르듯이 바둑계도 압축적 근대화와 고속 성장으로 한국 바둑 고유의 문제들을 (예를 들면 프로 기사들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 직면하게 되었는데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필자는 언어문화학자로서 한국 문화의 줄기인 소위 ‘빨리빨리 문화’와의 관련성이 떠올랐다. 바둑계에서도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으로 최단 시일 내에 일본을 이기고 중국

과 대적하기 위해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빨리빨리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으로는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이 필연적으로 그 빠른 성장 속도의 이면에 허점과 결점을 내포하기 마련인데 같은 현상이 바둑계에서도 일어났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 흥미로웠다. 동시에 일본이 한국과 달리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전통을 고수하는 태도로 일본 바둑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 온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 결점으로 작용해서 한국 바둑에 뒤지게 된 것이 최근 경제적으로도 두 나라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실을 접하고 한판의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듯 한 국가의 바둑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의 축소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잠기게 되었다.

이 예측은 그대로 다음 장에서 확인된다. 제4장 ‘바둑과 국가’에서 저자는 민족주의와 결합한 한중일의 바둑 전통과 역사를 고찰하면서 필자가 언급한 민족주의와 결합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속 한국 바둑의 초고속 성장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을 꺾은 이후에 한국 바둑계는 모방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는 중국을 모방하는 길을 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저자는 성숙한 관찰과 예지로 이제는 우리가 한국 특유의 바둑 정체성과 경쟁력을 기르면서도 바둑세계화의 리더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 바둑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 중국은 국가라는 범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주체들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태도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여 국제대회에서의 승리만을 중시한다면 모두가 고루한 전통과 도구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어 70여년이 흐른 뒤에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손해다. 한국 바둑, 일본 바둑, 중국 바둑이 아닌 그저 하나의

바둑문화로서 모두의 공유물로 바둑이 인식될 때 무엇이 바둑 문화가 지향해야 하는 바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81쪽).

제5장 ‘바둑의 제도화’ 편은 필자에게는 다소 건조한 학습 거리로 느껴졌다. 그러나 후반부에 이르러 한국 바둑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해하는 신선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곳에서 바둑의 규칙 관련 역사를 시작으로 국제 바둑 용어 정착 역사를 스케치한 후 주로 한국 바둑 단체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바둑의 제도권 역사와 더불어 그 제도권 내 단체들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 역사를 다룬 부분이었다. 사실 이 부분은 바둑 제도권 내에 있는 바둑계 인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바둑 팬이자 학자인 필자에게는 이 책의 전체 내용들 중 가장 흥미를 덜 느낀 부분이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선행 연구를 그대로 전문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내용 파악을 맡기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였는데 저자의 논문을 인용한 부분이 여러 번 중첩되어 다소 지루한 감이 들었다. 직접 인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자 자신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글을 매끄럽게 전개하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공존하면서 프로와 아마의 구분이 벌어지고 단종 발급의 주체 싸움과 누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기하여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바둑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바둑계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은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깨우침이었다. 이와 관련 저자가 일찍이 2008년에 벌써 이것을 간파하고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충언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남지형(2008)은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각각의 정관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과 업무가 잘 구별되지 않으며 운영방식 역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국제적인 변화상을 잘 인식하고 그에 맞춰 국내 시스템을 정비하는 구체적 방안에서 가장 시급한 일로 두 단체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117쪽).

제6장 ‘바둑의 전문직성’에서 저자는 역시 바둑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관련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곳 논의에서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말부터 대중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여 여가 활동이 증가하기 전에는 아마추어리즘이 돈을 밝히지 않는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과 연결된 좋은 의미였으나 이후 산업화와 상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프로스포츠가 등장하게 되자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아마추어 같다’는 일상 표현이 ‘미숙함과 실력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흥미롭게 접했다. 언어학자로서 같은 용어인 ‘아마추어’를 일상에서 은유 확대하여 쓸 때 시대 변화에 따라 그 가치 판단적 의미가 변함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언어는 사회와 문화의 거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프로페셔널리즘’ 논의에서 저자는 ‘전문직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전문 직업의식”이 아니라 “주로 희소성을 통해서 지키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신입의 수를 제한하고 자신들만 알아듣는 은어를 개발하고 자신들의 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스스로 하며, 금전적 보상의 수준을 담합하거나 저렴하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이익을 유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엘리트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대표적인 집단으로 최근 한국 정치 분야에서 정치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카르텔 세력들이 배타적 ‘전문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성처럼 공고하게 쌓아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실 검찰과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의사와 교수 등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구조 속에서 평가받지 않고 내적 혁신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확대하는 성을 구축하고 그곳에 안주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곳에서의 논의는 필자와 같은 전문 학자이자 교수에게도 그 성찰적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전문직 관련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한 후 책의 주제인 바둑 프로 기사 관련 논의를 읽게 되자 훨씬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도 커지고 흥

미도 배가되었다. 저자는 한국 바둑의 경우 일본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프로 제도가 생긴 관계로 바둑을 전문으로 두는 프로 기사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프로 기전의 활성화로 크게 발전하면서 프로 기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커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다가 급속한 환경 변화로 프로 기사들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한국기원과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최근에는 아마와 프로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한 바둑 관련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바둑 프로 기사들은 ‘전문직 프로젝트’로 자신들의 전문직 기득권의 성을 더 크고 높게 쌓기는커녕 기존의 작은 성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된 데에는 내외부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프로 기사 집단은 자체 충족적이기 때문에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부 혁신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비판은 사실 사회 다른 전문가 영역 특히 필자가 소속한 대학 교수 집단에도 경종을 울린다. 흔히 대학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교수들이 얼마나 내부 혁신 노력을 하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가 결론 부분에 쓴 경종의 문구가 큰 울림을 준다.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된다면 프로의 지위가 과거보다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은 종신제 프로는 결국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력이 뛰어나서 돈을 받고 바둑을 두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프로 제도가 프로보다 실력이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프로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아마추어 선수가 나타남으로써 프로의 존재의의가 점점 더 흐릿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180쪽).

제7장 ‘미디어와 스포츠’에서 저자는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의 전환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후 ‘보는 스포츠’의 발달이 미디어의 발전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졌는지 역사적 논의를 먼저 전개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보는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에 스토

리텔링 내용과 방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관찰이다. 예를 들어서 바둑의 경우 한국 바둑의 초기 역사에서는 텔레비전 매체가 어느 정도 발달한 시기임에도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관중의 환호 등 효과음의 ‘효과’가 없기에 마치 연재 소설식 스토리텔링 방식의 기보의 내용과 해설이 신문과 잘 어울렸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저자는 바둑이 장고를 허용하는 것이 텔레비전을 통한 바둑 중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였으며 바둑도 텔레비전의 특성에 맞추어 속기 대국을 활성화하기도 했지만 결국 ‘보는 스포츠’로서의 바둑에 혁명을 가져온 것은 인터넷과 유튜브의 발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텔레비전과는 달리 중계와 해설은 물론 실시간으로 바둑 팬들이 채팅 창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대국 감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떠오른 생각이 바둑의 최대 매력 중 하나가 지난 수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수도 예측하는 등 경기 자체를 실시간 분석하고 경기 분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텔레비전 중계 방식이 여전히 극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다. 해설자가 반상에서 참고도를 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설하지 않고 실시간 채팅 창을 이용해서 팬들에게 다음 수를 어느 곳에 둘지 묻고 대답하고 AI 예측 수와 비교하는 등의 장면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실험과 혁신적 중계 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제8장 ‘바둑과 여가’에서도 저자는 역시 역사적 고찰을 앞세우고 여가 선용으로 바둑의 매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역사적 고찰 부분에서 저자가 “이제는 과거의 신분 귀족이 영위했던 여가로만 가득 찬 삶을 보통 사람들도 은퇴 이후에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구절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런 시간을 이제 ‘인정받는 여가 활동’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질 장기간 지속되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식으로 여가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바둑의 매력은 한마디로 ‘몰입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경험은 “사랑에 빠졌을 때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 행복해지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의 지적에 깊게 공감하며 바둑을 비롯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마음의 저변에 승부를 초월해서 그 활동 자체를 사랑

하는 순수한 낭만성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제9장 ‘바둑 교육’에서 저자는 교육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다음과 같이 성찰하고 있다.

“선생의 역할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 교육은 사람의 인생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와 선생은 결국 학생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225쪽).

이어서 바둑 교육 관련 저자는 “과학교육이나 역사교육, 문학교육 등이 그 구체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학적 사고훈련, 역사와 문학을 통한 인간성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는 훈련으로 변해야 한다면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바둑 기술을 암기하고 숙달하는 것은 오직 바둑을 잘 두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소수에게만 필요한 훈련일 것이다. (중략) 바둑에서도 수읽기의 깊이와 폭이 넓어질수록 바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커질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즐거움은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즐거움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바둑을 통한 교육관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이 지적에 크게 공감하며 이곳에서 필자가 가장 크게 주목하는 표현이 ‘즐거움’이다. 교육자는 학생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의미 깊은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며 배울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학생이 즐거움 속에서 배우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것이다. 바둑은 재미있는 두뇌 스포츠다. 바둑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며 바둑 실력을 늘리면서도 사고력도 향상시키고 결국 인격도 도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과 성찰은 바둑은 물론 거의 모든 분야의 교육자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0장 ‘남성과 여성’ 주제 관련 “한국기원의 경우 40명의 이사회 멤버 중 2020년 8월까지 여성 이사는 단 1명이다”라는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말해 준

다(248쪽). 저자는 스포츠 전반에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주변화되어 온 데에는 미디어의 여성성 이미지 왜곡 피해가 크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저자는 이어서 여성이 왜 바둑을 덜 두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바둑 사회와 문화에 만연해 있던 성차별적 요인들이 이 편파적 상황을 만든 주역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차별적인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저자는 한국 바둑 역사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성장해 온 역사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 기전과 각종 바둑 대회에서는 물론 바둑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여성 프로 기사들의 활약이 괄목할만하다. 바둑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신적 능력 중 특히 섬세함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강점이 있고 바둑을 두는 기풍과 스타일에 있어서도 여성 바둑이 남성 바둑보다 재미와 묘미가 있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저자가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바둑 사회 환경 특히 미디어에서 그런 여성의 강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발휘될 수 있도록 중계하고 보도하는 일일 것이다. 남녀의 언어 차이에 관심이 깊은 필자에게는 이 주제가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다.

제11장 ‘바둑 문화’에서 저자는 바둑 문화를 “우리가 바둑에 대해 인지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즐기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바둑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스포츠나 문화예술 등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들을 경쟁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바둑 보급 시장의 확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방향의 자세와 노력의 바탕에는 한국 바둑 특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면서 바둑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면서도 두 국가와 함께 슬기롭게 협력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의 뿌리가 바로 세계 유일의 바둑 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라고 할 수 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바둑 사회와 문화를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발전시키는 한국 바둑 인프라의 기반으로 한국 중심의 바둑 글로벌화

를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 숭고한 역할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영진의 근시안적인 안목의 폐해로 최근 명지대 바둑학과와 폐과 움직임이 있는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한국 바둑은 K-culture의 글로벌 전파력과 영향력 속에서 세계 바둑계를 이끌어나가면서 한류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잠재적 성장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루아침에 뽑아버릴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하다.

제12장 ‘최근의 이슈들’에서 저자는 현재 한국 바둑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바둑진흥법과 기보의 지적 재산권 문제 같은 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 바둑 사회의 핵심 문제인 기사간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바둑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부분에 고루 돌아야 할 지원금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들에게만 쏠린다면 전체 바둑계는 건강성을 잃고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많은 비민주적 독재국가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에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난민을 만들어 낸 것처럼 바둑계 역시 전체를 위한 장기적 계획 없이 현재의 기득권층에게만 부가 집중된다면 바둑계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298쪽). 이어서 고령화 문제도 논의하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할수록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둑 생태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바둑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으로 확대되었다. 바둑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듯이 바둑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데에서 얻는 지혜가 우리 사회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서평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싶은 것이 내용의 광범위성과 종합성이다. 목차의 주제가 증명하듯이 바둑을 둘러싼 거의 모든 현상

즉 바둑 규칙과 제도는 물론 한국 바둑의 역사와 현재를 역사학과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고 바둑의 문화 현상과 바둑 교육 등의 주제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주제에 대해 역사학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통찰력 있는 분석과 논의를 제공하고 있기에 읽는 내내 흥미진진하다. 또한 바둑 관련 논의를 통해 인간 본성과 같은 인문학적 주제는 물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게 되는 사회과학적 통찰력도 얻게 된다. 저자는 결코 현학적이지 않은 겸손하고 읽기 쉬운 용어와 문체로 세심하고 친절한 스타일로 글을 썼기에 이 책은 넓은 층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가독성도 뛰어나다. 이 책은 바둑학 분야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한 연구 자료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바둑 팬들에게는 바둑을 반상 위 한편의 바둑이라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즉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 속에서 매우 광범위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교양서의 역할과 가치도 뛰어나다.